신라인은 왜 사리를 탑 상층부에 모셨을까

신라인들의 탑파 신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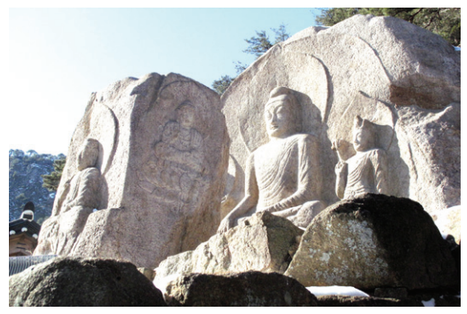
염불사지부터 남산리까지 답사

경주 남산은 신라 불교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노천 박물관이다. 산 곳곳에 147개의 절터와 120여 구의 불상, 99기의 석탑과 22기의 석등이 천년 신라의 시간을 간직한 채 산재돼 있다. 본지와 신라문화원은 공동으로 경주 남산의 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불적 답사를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총 12회에 걸쳐 진행한다. 남산의 탑파 신앙, 설화, 불상 등 테마별로 진행되는 불적 답사를 지면에 소개한다.

2002년 복원된 용장계 못골 모전 삼층석탑에서 신라문화원 답사단이 모전석탑의구조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있다.

남산에 산재된 불탑에 대한 안내를 참가자들이 듣고 있다.

최민희 신라문화원 부설연구소장이 탑파신앙에 대해 설명 중이다.



칠불암 마애석불군. 앞의 사방불은 단층석탑으로 추정된다.

7세기이전 목탑, 기단에 사리 봉안
석탑 대부분 7세기경 조성 추정
원측의 '불설조탑공덕경' 영향
칠불암 사방불은 본래 단층석탑

매서운 동장군의 기세가 물러설 줄 몰랐다. 경주 남산에도 그간의 서설(絮雪)이 하얗게 내려앉아 얼었다. 눈이 흔하지 않은 경주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이다. 1월 5일 신라문화원의 경주 남산 불적 답사는 추위와 눈과 함께 시작됐다. 그래도 신라불교의 면모를 알기 위해 서울, 부산, 울산 등 전국에서 모인 40여 명의 참가자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첫 답사의 주제는 '신라인들의 탑파신앙을 찾아서'. 염불사터로 올라가는 길에서 답사의 설명을 담당한 최민희 신라문화원 부설연구소장은 답사 코스와 남산의 대략적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경주 남산을 오를 때에는 오전에는 동남산을 오르는 것이 좋고, 오후에는 서남산을 답사하는 게 맞습니다. 유적을 답사할 때는 광선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라시대 전형적 가람, 염불사지

처음 만난 유적은 남산 입구 봉구곡의 염불사지 동서 삼층석탑. 염불사의 조성 설화는 〈삼국유사〉권제5 효선 제8에서 찾을 수 있다. 신라 시대 경주 남쪽에 '피리사'라는 사찰이 있었다. 이곳의 스님은 매일 시간을 정해두고 염불을 외웠는데 그 소리가 경주 17만 8천 호에 들리지 않는 곳이 없었다. 사람들은 스님을 공경해 '염불 스님(念佛師)'이라 불렀다. 스님이 입적하자 사람들은 스님의 소상을 민장사에 모시고 주석처를 '염불사'라고 고쳤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염불사는 현재는 동서의 삼층석탑을 제외하면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다만 2003년 발굴을 통해 중문지와 동서 회랑지, 석탑 하부 기단성토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최 소장은 염불사지를 통해 신라시대 평지 사찰 구조를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지에 조성된 신라시대 사찰들은 중문지와 동서 석탑, 회랑 그리고 대웅전 등의 전각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염불사뿐만 아니라 경주의 사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산에 조성된 사찰들은 탑과 불상이 가장 위에 있고, 전각들이 아래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염불사지의 동서 삼층석탑은 모두 현대에 복원된 것으로 서 삼층석탑에서는 2, 3층에서 사리공이 확인됐다. 이 역시 감은사 이후 조성된 신라 탑파들의 형식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게 최 소장의 설명이다. 감은사 이전에 세워진 탑들은 대부분 목탑에 부처님의 사리도 아래에 모실 수 있게 만들어졌지만 682년(신문왕 2)에 세워진 감은사 이후에는 삼층석탑으로 정형화됐다. 사리공이 탑의 상층부로 올라간 것도 이 시기부터다.

왜 신라인들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사리공을 위로 올리고 삼층석탑을 조성했을까? 최 소장은 '경주 남산은 아는 것은 없고, 모르는 것은 많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다만 당시 원측 스님(613~696)이 번역해 들여온 〈불설조탑공덕경〉의 영향을 받지 않았겠냐고 추정했다.

"원측 스님이 역경했던 〈불설조탑공덕경〉에 따르면 '탑이 없어서 능히 그 가운데 세우려는 이는 그 형상이 높고 묘해 삼계(三界)를 지나게 하거나 내지 지극히 작게는 암라과(菴羅果)와 같게 하라'고 설했습니다. 여기서 '삼계'에 대한 표현을 위해 신라인들은 삼층의 석탑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독특한 조형양식 칠불암과 신선암

남산의 길을 따라 오르니 곧 험로(險路)가 펼쳐진다. 칠불암의 일곱 마애부처님을 만나기란 좀처럼 쉽지가 않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길 40여 분. 기암괴석에 아담한 절 한 채가 답사단을 맞이한다. 그 옆에는 경주를 굽어보고 있는 일곱 분의 마애불이 조성돼 있다.

서쪽 거암에는 마애삼존불이 조성돼 있고, 그 앞에 6면 입방체의 바위에는 사방불이 있다. 수 백년의 시간을 비바람을 맞으면 지냈지만,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모습에 경건함마저 든다.

탑파 신앙의 주제와는 달리 마애불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의문은 이곳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수 십차례 답사를 다닌 최 소장의 설명으로 정리가 됐다.

"마애삼존불과 사방불은 원래부터 현재의 모습으로 조영된 것이 아니라 삼존불만 조성되고 사방불은 다른 곳에서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불은 단순히 불상의 역할이 아니라 단층석탑 형식으로 지어졌을 것입니다. 실제 사방불 위에 탑신석과 옥개석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칠불암은 마애삼존불을 주불로 하고 사방불 단층석탑으로 구성된 사찰 이었습니다. 또한 남산에 현존하거나 탑재만 남은 석탑 중 큰 석탑에 해당되는 만큼 왕실과 관련될 가능성이 큽니다."

칠불암에 왔으면, 함께 봐야하는 곳은 바로 신선암 마애보살상이다. KBS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의 촬영으로 더욱 유명해진 신선암 사지의 풍광은 말 그대로 장관을 이룬다. 깍아질 듯 한 절벽에 아로새긴 신선암 보살상은 조성 위치부터 상호까지 모든 것이 신비롭다. 무엇보다 좁은 공간에서 보살상을 조성한 옛 석공(石工)의 불심과 노력은 경건함을 넘어 애절하기까지 하다.

모전석탑의 흔적 용장골, 남산리

봉화대를 넘어 다시 발길을 재촉했다. 용장계 못골(茸長溪 池谷)로 가기 위해서다. 용장계는 남산에 있는 어느 골짜기보다 길고도 깊다. 이곳은 남산 용장계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능선을 타고 1시간여를 걸으니 용장계 못골 제3사지가 나타난다. 이곳에서는 탑지와 더불어 서향의 건물지, 담장지가 발굴됐다. 제3사지의 석탑은 발견 당시에는 무너져 흩어져 있었다. 다행인 것은 노반석과 상륜부를 제외한 전 부재가 확인돼 2002년 3월 복원했다.

이 탑은 경주에 있는 다른 석탑들과는 생김새가 조금 다르다. 탑의 지붕돌이 전탑 형식에서 볼 수 있는, 상하 모두에 옥개받침이 있는 모전석탑의 형식이다.

용장계를 내려와 신라인들의 탑파신앙의 대미를 장식한 곳도 비슷한 모전 석탑형식이 남아 있는 남산리 동서삼층석탑이다. 보물 제124호인 동서 삼층석탑은 서로 양식을 달리하면서 동서에 대립하는 특수한 쌍탑으로 이중 동탑이 모전 석탑 형식을 따르고 있다.

서탑은 전형적인 신라 석탑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기단부에 팔부신중이 부조로 조각돼 있다. 기단부에 신중을 새기는 것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석탑 형식이라는 게 최 소장의 설명이다.

"석탑의 외부를 지킨다는 의미의 팔부신중은 경주 부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이는 석탑 연대와 더불어 팔부신중 조각의 양식 계보 설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답사단은 철와골 서출지와 이요당을 살펴보고 답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답사에는 스님뿐만 아니라 방학은 맞은 학생들이 함께 참가해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지난해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남산불적답사에 참석한 후 남산에 매력에 빠졌다는 준오 스님(서울 팔정사)은 "마음챙김 명상을 하는 단체 회원들과 함께 남산에 왔는데 부처님의 가피가 면면히 담긴 불상과 탑을 만날 수 있어 좋았다"며 "한적한 길을 걸으며 내 자신을 들여다 보는 마음챙김 명상도 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산에서 참가한 이정애(40)씨는 "책과 방송에서만 본 문화재들을 현장에서 볼 수 있어 감회가 새로웠다"고 말했으며, 아들 장석준(12, 부산 용수초)군은 "산 곳곳에 우리의 문화재가 있다는 게 신기했다. 힘들었지만 즐거웠다"고 밝혔다.

돌아가는 길, 남산 너머로 땅거미가 진다. 석탑들의 그림자도 길게 드리워졌으리라. 돌과 돌 사이 빈틈없이 세워진 석탑의 모습을 되새겼다. 층층이 쌓인 석탑에는 켜켜이 쌓이는 인연들의 나이테가 있었다.

경주=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현대불교신문사 · 신라문화원
경주 남산 불적 답사 일정

2/2	신라인들의 불상 조성 사상
3/2	남산에서 만나는 신라 전설
4/6	신라인들의 불상 조성 방법
5/4	서악에서 바라보는 남산
6/1	남산에서 불국토로 가는 길
7/6	신라 시조 탄생과 유상곡수 흔적
8/8	금강산에서 바라보는 남산
9/7	남산의 자연과 복원탑
10/5	낭산에서 바라보는 남산
11/2	신라인들의 수미산
12/7	신라 호국사상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054)774-1950, www.silla.or.k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佛紀 2557年 癸巳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사)대한불교 무량종

비 룡 정 사

주지 박보산

신도일동

■ 인천시 중구 항동 1가 2번지 24/1 ☎ 032)763-1237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 미얀마

미얀마 성지순례 더 가깝게 만나보세요

● 양곤 | 바고 | 시리암 5일 8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1,3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1,54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6일 요금문의

※ 짜익티오 파고다 정상 짜익토호텔 숙박 – 파고다 철야기도 등 가능

차별화된 가격! 품질! 불교행사를 경험 해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여행사 운영업체"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29만원 (추가경비 일체 없습니다)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4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 7일 요금문의
▣ 라오스 직항 5일 135만원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